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9.(수) 10:00	배포 일시	2022. 11. 9.(수) 10:00
담당 부서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한상철 (032-835-2071)
		담당자	계 장 김광현 (032-835-2173) (010-9711-7531)

해양경찰 중형헬기 1대 「흰수리」로 도입 확정

- 노후 카모프 헬기 대체 도입으로 현장 대응 역량 크게 강해져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노후화된 카모프헬기 대체 도입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중형헬기 1대 계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레이다, 광학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이다.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대의 ‘수리온’ 계약이 체결되었다.

‘수리온’은 2019년 해양경찰청에서 최초 도입할 당시 고유애칭을 전 직원 공모를 통해 ‘흰수리’로 명칭한 기종이다. 현재 3대는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2대는 제작 중에 있다.

계약한 헬기는 36개월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11월경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한상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도입되는 국산헬기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기술력이 반영된 첨단 임무장비를 보유한 중형 헬기로써 현장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탄탄한 국내 정비기술력으로 장비 가동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